

중국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 배경과 의의



중국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 배경과 의의

부산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
장정재 연구위원 (jangjj@bdi.re.kr)

■ 목 차

1. 지정 배경
2. 주요 내용
3. 의의 및 전망

- 자유무역항의 범위는 일관되지 않고 지역(국가)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자유무역항은 제품 수입, 보관 및 수출에서 관세부과가 유보되는 등 무역장벽이 없는 개방 수준이 가장 높은 특수 경제지역임.
- 자유무역항 지정은 중국 하이난성의 전통산업 구조조정 및 산업고도화 추진으로 지역경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플랫폼을 마련함.
- 하이난 주요 산업은 관광업, 농업, 채광업 등으로 지역경제 성장발전을 위한 동력이 미확보된 상태에서 자유무역항을 통해 발전 도약하고자 함.
- 총 3단계 발전전략을 통해 2050년에 하이난이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자유무역항 완성으로 종합경쟁력 및 문화 영향력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성장하고자 함.
- 2049년(신중국 성립 100주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 목표에 보조를 맞춰 경제 제도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음.

1. 지정 배경

1) 자유무역항 개황

- 2020년 6월 중국 선전 경제특구 보다 진일보된 대외 개방도로 확대하는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 총체 방안(海南自由贸易港建设总体方案), 이하 총체방안」을 발표함.
 - 「총체방안」은 하이난을 2050년까지 중국 특색의 자유무역항으로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3단계의 중장기 목표 및 구체적 실행 계획을 명시하고 있음.
- 「총체방안」 발표를 계기로 본 고에서는 자유무역항 설립 배경, 내용, 의의 및 전망에 대해 고찰함.
- 자유무역항은 자유무역구(지역)의 한 가지 형태로, 특정 지역에서 교역이 활성화 되는데 중요한 촉매제 역할을 함.
 - 일반적으로 자유무역항은 외국 물품 및 자금이 해당 국가(지역)의 국경 내에 있으면서, 세관으로부터 통제(검사·관리)를 면제받는 항구지역임.

- 최초의 자유무역구(지역)는 프랑스 2대 국제 항구 중 한 곳인 마르세이유항으로 13세기에 조성됨.
 - 마르세이유항은 프랑스 최대 무역항으로 론강 하류에 위치해서 프랑스 내륙 운송항의 연결점이자 독일·스페인·이탈리아·벨기에 등 유럽 주요 시장과 연결하는 중심지 역할을 함.
- 1547년 이탈리아 제노바의 리보르노 항(Livorno)이 세계 최초의 자유무역항으로 지정되었으며 이후 유럽 국가들이 일련의 항구 도시들을 자유무역항으로 지정(KOTRA 글로벌 마켓 리포트 2018, 2)
- 전 세계 자유무역항은 130여 개 이상이 설립되었는데 대부분이 연해 지역 항만에서 운용되고 있음.
 - 내륙국가 스위스의 제네바와 취리히 등 20개의 자유무역항이 설립·운영되고 있음.
 - 수출입 관세를 부담하지 않는 제네바와 취리히의 자유무역항(free port) 내 창고들이 호황 중임(조선일보 2013/7/26).

[그림 1] 세계 자유무역항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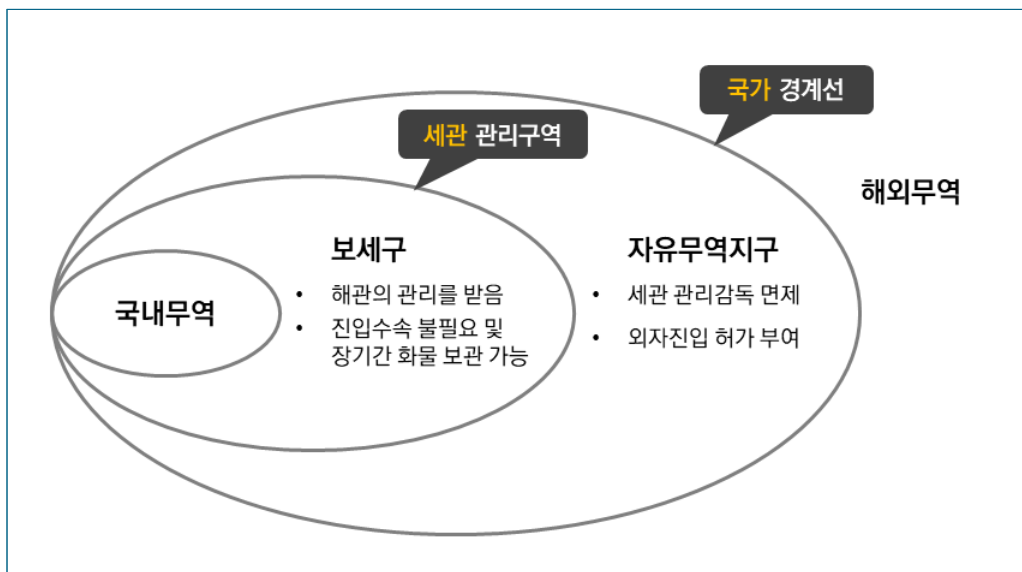
자료: 자유무역항연구(2018), p.4

- 자유무역항은 물품 수입, 보관 및 수출에서 관세부과가 유보되는 등 무역장벽이 없는 개방 수준이 가장 높은 특수경제 지역임.
 - 자유무역항으로 지정·운영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비행기, 선박 및 세계 어느 나라 사람도 모두 수용함.
 - 자유무역항에서는 항구지역에 출입하는 물품의 전부 또는 대부분의 관세를 면제하며 물품 보관, 전시, 해체, 개조, 재포장, 분류, 가공 및 제조를 허용함.
 - 최근의 자유무역항은 물품의 환적·가공·저장에만 한정된 무역개방에서 금융 및 관광으로 개방 범위가 크게 확대됨.
- 자유무역항의 범위는 일관되지 않고 지역(국가)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대부분의 자유무역항에서는 소수의 지정 상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거나 일부 무역 제한을 적용·운용함.
 - 대부분의 자유무역항은 특정 항구 하나만을 제한적 범위로 지정하지만 홍콩, 싱가포르는 도시 전체가 자유무역항이자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하이난 자유무역항 역시 하이난성 전체를 자유무역항으로 지정함.
- 자유지역은 설치목적 따라 ‘수출(가공)자유지역’, ‘자유무역지역’으로 구분됨.
 - 수출(가공)자유지역은 수출입원료 및 제품에 대해 관세가 면제된 상태에서 원자재 또는 중간재를 가공 제조해 재수출하는 특수지역임.
 - 대만의 가오슝시와 한국의 초창기 마산·익산 자유지역이 여기에 해당함.¹⁾
 - 자유무역지역은 일반관세 지역으로부터 분리되어 선박들이 세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항하여 화물을 양륙 또는 바뀐 신거나 재포장·가공하여 재수출할 수 있는 지역으로 반입되는 외국 물품 및 특정 내국물품에 대해 관세가 유보되고 부가카치세 영세율이 적용됨.
 - 생산중심형 자유무역지역 : 제조업 부문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활성화할 목적으로 설치(마산, 군산, 대불 자유무역지역, 대만의 수출가공구 등)²⁾
 - 교역 중심형 자유무역지역 : 국제교역 활동상의 규제 완화를 통해 무역을 증진하고자

1) 마산자유무역지역은 1970년부터 2000년 7월까지 생산중심의 [수출자유지역(Free Export Zone)]으로 운영됐으나, 2000년 7월 이후부터는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생산은 물론 무역·물류·유통·정보처리·서비스업 등의 새로운 기능이 추가된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Zone)]으로 확대 개편·운영됨.
 2) 산업통상자원부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홈페이지

- 하는 목적으로 설치(독일의 함부르크,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및 로테르담항 등)
- 생산·교역 복합형 자유무역지역 : 교역형과 생산형의 혼합형으로 모든 경제적인 활동이 가능(미국의 자유무역지역, 홍콩, 싱가포르)
- 중국에서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Zone, FTZ)은 중국의 전통적인 무역구 및 보세구와 차이가 있음.
- 중국의 자유무역지역(FTZ)은 무역 자유화를 촉진하도록 서비스업 개방 및 금융제도 혁신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 자유무역지구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세관 치외법권’으로, 진정한 ‘경내관외(境內關外)’를 실행하느냐가 자유무역지구 성공의 중요한 조건이 됨.
 - 경내관외란 중국 내에 있지만 국제자유무역 운영방식을 접목해서 자유무역 제도를 따른다는 의미로 무역 가공을 하거나 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상품에 대한 세금과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기존의 보세구는 경내관외가 아닌 중국 세관의 엄격한 관리 감독을 받지만, 상하이 FTZ와 같은 자유무역구는 중국 세관의 관리범위를 초월해 있으면서 외자기업임에도 기업활동에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는 혜택이 있음.

[그림 2] 자유무역구 개념 정립



자료: 证券之星(<http://news.stockstar.com>) 그림수정

2) 중국의 자유무역항 추진 과정

- 2013년 9월 중국(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 정식 출범을 통해 중국의 대외 개방을 더욱 확대하는 전략적 선택을 단행함.
 - 상하이시는 2009년 양산(洋山)보세항구, 와이가오차오(外高桥)보세구, 푸둥(浦东)공항종합보세구 등에 상하이시 종합보세구를 정식으로 조성했으며 ‘종합보세구 관리위원회’ 설립을 통해 관리 제도를 완비하고 실행 경험과 노하우 축적으로 전문성을 확보함.
 - 2000년대 중반부터 상하이와 광둥성 선전, 텐진, 충칭, 쓰촨성 청두 등에서 보세구를 FTZ로 바꾸자는 제안들이 본격 제기되기 시작했으며 그중에서도 상하이는 가장 먼저 구체적인 행보를 보였음(매일경제뉴스 2013/10/7).
- 상하이 국제투자자와 무역 통용 규칙에 접목될 수 있는 제도 시스템을 구축하여 투자 무역 자유를 실현하고 규칙 투명 개방, 공평하고 효율적인 감독 관리 및 경영환경이 편리한 국제적 수준의 자유무역구를 구축 목표를 수립함.
 - 개혁시스템 통합을 강화하여 시장진입 측면에 있어 투명성을 강화하고, 사업 등기제도를 전면 심화하여 ‘증조분리(证照分离 : 영업집조와 경영허가증을 분리)³⁾하여 전면적인 개방을 시행하고, 국제무역의 ‘단일창구’가 국제 선진 수준에 달해 세관 관리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더욱 빠른 업무효과를 추구함(KMI 중국리포트 2017, 6).
-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를 2013년 9월 첫 설립한 이후 총 6회에 걸쳐 추가적인 확장을 시행했으며 현재 21개의 자유무역시범구를 지정 운영하고 있음.
- 2018년 10월 하이난을 중국의 12번째 자유무역시범구이자 최초의 자유무역항으로 지정함.

3) 증조분리 : 중국에서 영업집조(사업자등록증) 발급은 쉽지만 경영허가증은 발급받기가 까다로워서 “투자를 허용하더라도 경영은 허락되지 않는다”라는 모순된 현상이 나타남.

[표 1] 자유무역항 추진 과정

<p>자유무역구 1.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中国 (上海) 自由贸易试验区》 정식 출범 	<p>2013년 9월</p>
<p>자유무역구 1.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8기3중전회 《중국 공산당 중앙정부의 전면적 심화개혁 일부 중대문제에 대한 결정, 中共中央关于全面深化改革若干重大问题的决定》 발표를 통해 자유무역항 개념과 시범지역 선정 작업에 착수를 언급 	<p>2013년 11월</p>
<p>자유무역시범구 추가 설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둥(广东), 텐진(天津), 푸젠(福建) 내 자유무역시범구 추가 설립을 허가 	<p>2015년 4월</p>
<p>자유무역구 2.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하이) 자유무역구 개혁개방 전면심화의 방안, 全面深化中国 (上海) 自由贸易试验区改革开放方案》을 통해 국제투자자 무역 통용 규칙에 적용될 수 있는 제도 시스템을 구축하여 투자 무역 자유를 실현하고 규칙 투명 개방, 공평하고 효율적인 감독 관리 및 경영환경이 편리한 국제적 수준의 자유무역구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명시 	<p>2015년 4월</p>
<p>자유무역구 3.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进一步深化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改革开放方案》을 통해 자유무역항 (지역) 설립 제안 	<p>2017년 3월</p>
<p>하이난 자유무역시범구 지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의 12번째 자유무역시범구이자 최초의 자유무역항으로 지정 	<p>2018년 10월</p>
<p>자유무역항 지정 및 건설 시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이난 자유무역항 총체 방안, 海南自由口岸港建口总体方案》 자유무역항 건설에 착수 	<p>2020년 6월</p>

자료: 저자 작성

3) 하이난성 현황 및 당면과제

- 하이난성은 우리나라 제주도와 비슷한 관광·휴양도시로, 면적은 33,210km²로 제주도 면적의 20배임.
- 2019년 하이난 인구 937만 명(호적인구) 가운데 15% 정도가 리족(소수민족) 인구임.
- 2019년 1인당 GDP는 56,507위안(약 8,201USD), 도시인구 1인당 평균 가처분소득 37,097위안임.
 - 농촌인구 1인당 평균 가처분소득 16,279위안으로 도시주민 소득에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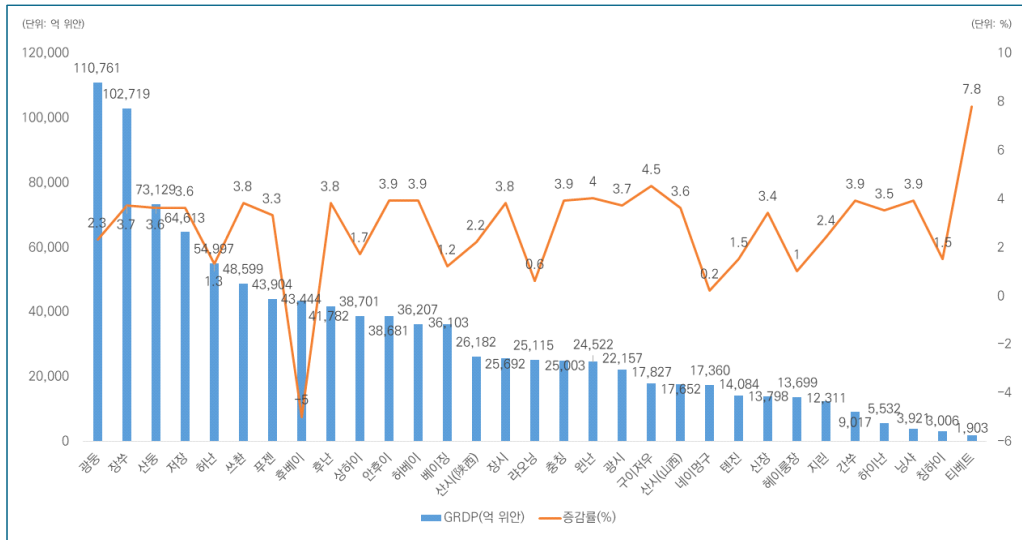
[표 2] 하이난성 경제지표(2020)

구분		내용	
GDP		5,532.39억 위안 (+3.5%) ※ 중국 전체의 0.5%	
산업별 GDP 및 비중	1차 산업	1,135.98억 위안 (+2.0%)	20.5%
	2차 산업	1,055.26억 위안 (-1.2%)	19.1%
	3차 산업	3,341.15억 위안 (+5.7%)	60.4%
사회고정자산투자(SOC 투자)		3,945.13억 위안 (+8%)	
실제이용 외국인직접투자		30.33억 USD (+100.7%)	
대외교역		○ 대외교역액 : 933억 위안 (+3%) ※ 중국 전체의 0.3% - 교역수지: 380.2억 위안 적자 - 수출: 276.4억 위안 (-19.6%) - 수입: 656.6억 위안 (+16.8%)	
한국 對하이난성 교역현황		○ 교역액: 439백만 USD (+31.8%) ※ 한·중 교역액의 0.1% - 교역수지: 217백만 USD - 수출: 328백만 USD (+21.5%) - 수입: 111백만 USD (+76.2%)	
도시인구 1인당 평균 가처분소득		37,097위안 (+3%)	
농촌인구 1인당 평균 가처분소득		16,279위안 (+7.7%)	
사회소비재총매출액		1,974.63억 위안 (+1.2%)	
소비자물가지수		102.3 (+2.3%)	
정부 재정		○ 일반공공예산 수입: 1350.58억 위안 (-3.5%) ○ 일반공공예산 지출: 1973.89억 위안 (+6.2%)	

자료 : 하이난성통계국(<http://www.hi.stats.gov.cn/>), 주광저우한국영사관

- 중국 하이난성 GDP는 2019년 5,300억 위안으로 중국 전체의 0.5% 점유하고 있으며 2020년에도 GDP는 5,532억 위안에 불과함.
- 광동성과 저장성은 10조 위안을 돌파했으나 하이난의 소득수준은 절대 빈곤선을 겨우 넘는 수준임.

[그림 3] 중국 성·시별 GRDP 및 경제성장률(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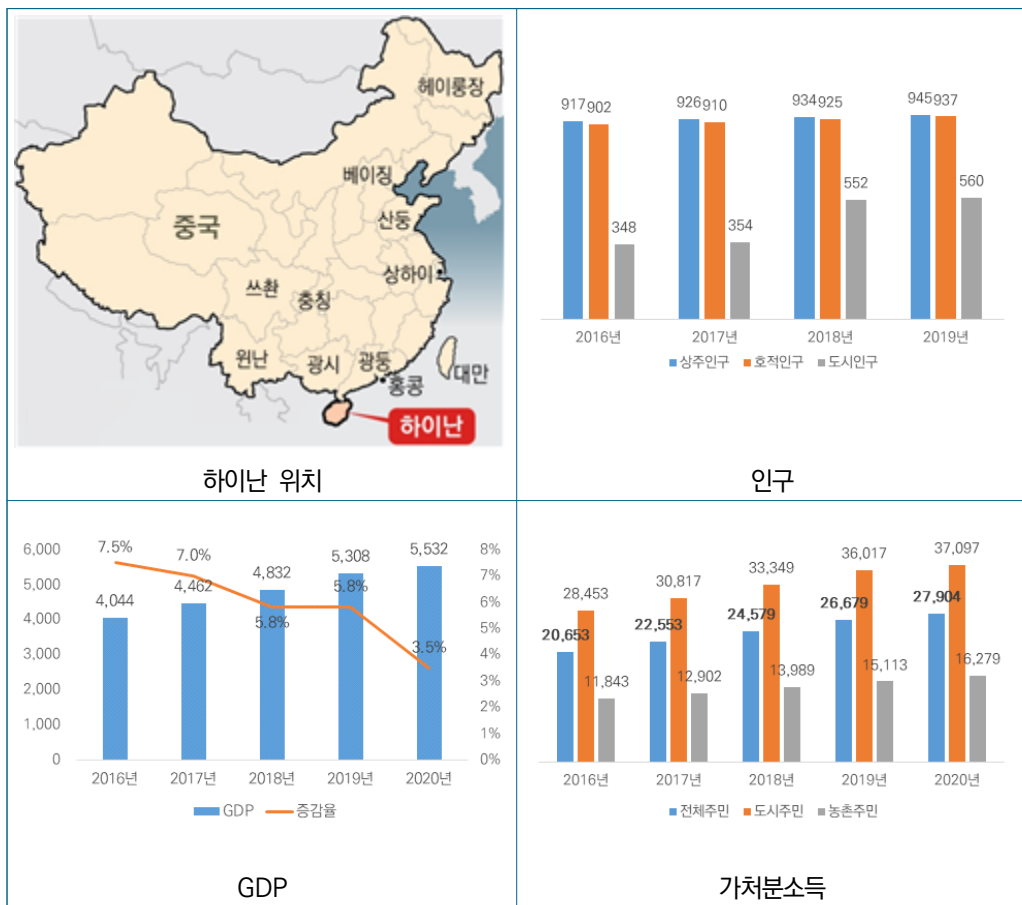


자료: 각 지방정부 통계

- 1988년 이전까지 중국 광둥성의 행정구역 일부로 포함되어 있다가 하이난성으로 분리된 만큼 지역경제 성장동력과 인프라가 취약함.
- 하이난 주요 산업은 관광업, 농업, 채광업 등으로 지역경제 성장발전을 위한 동력이 미확보된 상태임.
- 하이난성은 중국의 가장 작은 성급 행정단위이지만 남중국해와 동남아시아를 겨냥한 핵심 전략 지역 역할을 하고 있음.
- 동남아시아와 영유권 분쟁 및 지하자원(석유) 개발 등 외교·안보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
- 하이난성은 1988년 중국의 다섯 번째 경제특구로 지정되었으나 상하이, 선전보다 획기적인 발전은 이루어지지 않음.

- 제조 인프라 부족, 노동력 부족에서 비롯된 투자유치 실패로 경제특구임에도 발전이 정체됨.
- 관광업, 농업 위주로 발달해서 중국 동부 연안 지역의 발달에 못 미치고 있어서 산업구조 전환이 시급한 상황임.
- 제조업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외자기업 유치로 관광업 위주의 지역경제 구조를 전환하고자 함.

[그림 4] 하이난성 위치 및 경제지표



자료: 서울신문(2021. 7. 27.), 하이난성정부 통계자료

2. 주요 내용

1) 기본 내용

- 무역과 투자 자유화를 위한 기본 체계를 2025년까지 구축하고 국내외 자금·사람·물류의 자유화 및 편리화 체계를 2035년까지 구축하며 2050년까지 세계적 자유무역항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임.
-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개방정책 및 시스템 구축을 위해 선진 자유무역항의 사례 통해 제도, 관리 방법을 벤치마킹함.
- 하이난 자유무역항은 동남아 국가들과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웨이강아오 대만구(粵港澳大湾区, 광둥-홍콩-마카오 대만구)’와 공동 발전을 추진함.
- 하이난 자유무역항은 하이난성 전체로 천연자원 및 지리적 위치를 활용한 관광산업, 하이테크산업, 현대서비스산업(물류, 금융) 육성에 착수함.
- 하이난성에 더 많은 개혁 자치권을 부여해서 더 유연하고 효율적인 법률과 규정 및 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자유무역항 건설을 앞당기도록 함.
 - 자유무역항 건설에 장애가 되는 제도를 개선하고 제거하는 데 노력을 집중함.
- 6가지 자유화 조치, 1가지 목표, 4가지 법 제도 확립을 진행하는 ‘6+1+4’ 프로젝트를 추진함.
 - 6가지 자유는 무역 자유, 투자 자유, 국경 간 자금이동 자유, 입출국 자유, 운송 자유, 데이터 이동 자유
 - 1은 현대적 산업 체제 구축
 - 4는 세수, 치안 확립, 법치 및 불안 요소 통제
- 무관세, 법인세 감면, 관광 소비 촉진을 구체적 실행방안으로 제시하고 있음.
 - 자본과 상품의 자유로운 출입을 위해 무관세를 적용함.
 - 해외기업뿐만 아니라 자국 기업에까지 법인세 감면 혜택을 제공함.

- 쇼핑 면세 한도를 10만 위안으로 인상하여 관광객 소비를 장려하고 자국민의 해외 소비 욕구를 하이난에서 해결하도록 함.
- 1선 개방, 2선 통제하는 투 트랙 관리 방법으로 대외 개방에만 더 우대하는 정책을 펼.
-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수입품은 세관 검사를 생략하는 등 편의성을 보장하지만, 중국 내로 이동하는 화물은 기존과 같이 엄격한 관리·통제를 받음.

[표 3] 중국 하이난 자유무역항 및 중국 본토, 홍콩, 싱가포르 등의 세제 정책 비교

구분	하이난 자유무역항	중국 본토 (非자유무역구)	싱가포르	홍콩
기업소득세	(1) 기본원칙: 최고 15% (2) 관광업, 서비스업, 첨단기술산업 등 중점 육성산업에 속하는 외국기업은 직접투자자에 따른 소득세에 2025년까지 기업소득세 면제	최고 25%	최고 17%	최고 16.5%
개인소득세	납세연도 기준 하이난성에 183일 이상 거주하면 3%, 10%, 15% 단계별 누진세율 적용	최고 45%	최고 22%	최고 17%
수입 관세		대다수 제품에 수입 관세 징수	주류, 담배, 석유화학 제품에 수입 관세 징수	주류, 담배, 석유화학제품에 수입 관세 징수
소비세	일부 상품을 제외한 상품에 대해 수입 관세, 소비세, 증치세 면제 (제외될 구체적인 상품 목록은 이 방안에서는 미언급, 추후 발표 예상)	• 주류, 사치품, 석유화학제품, 자동차 등에 소비세 징수	주류, 담배, 석유화학 제품에 소비세 징수	없음
부가가치세 (증치세)		• 생필품(식품 등)에 증치세 9% 징수 • 수입제품에 증치세 13% 징수	7% 부가가치세 징수	없음

자료: 중국국무원, 싱가포르 세관, 홍콩 해관, 흥업증권보고서 정리, KOTRA 광저우무역관(2020/6/30) 재인용

2) 2025년까지 계획

- 화물수출입의 경우 2025년까지 먼저 보세항구에서 '일선개방, 이선통제(一线放开, 二线管住)' 수출입 관리 제도를 도입해 시범 적용하고, 2025년 이후 전면적으로 확대해 시행할 예정임.
 - 일선개방은 개방을 최우선적 목표로 하므로 화물이 자유무역항에 반입되면 세관 검사와 관세가 면제됨.
 - 이선통제는 하이난 자유무역항에서 화물이 중국 내 다른 지역(항만)으로 반출될 경우는 반드시 세관 검사가 이루어지고 관세 납부 의무도 적용됨.
- 2025년까지 무역 및 투자 자유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초기 자유무역항 체계 수립을 목표로 함.
 - 비즈니스 환경은 중국 내에서 최고 수준에 도달하고, 투자자들도 매우 증가한 상황을 마련
 - 자유무역항 조성을 위한 법률 및 규정 정비, 운영 효율성 크게 향상
- 2025년까지 하이난 자유무역항에서는 투자유치 장려 산업에 대해 기업소득세를 15%로 인하함.
- 하이난 자유무역항의 조기 정착을 위해 2025년까지 비즈니스 환경을 중국 선전시 수준 이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함.

3) 2035년까지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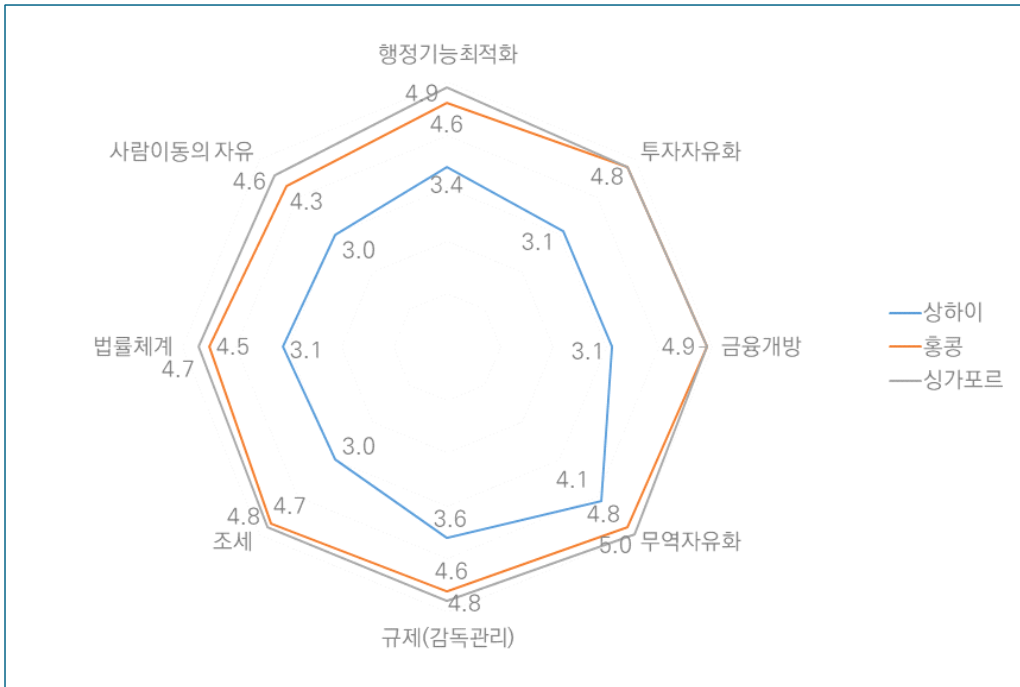
- 2035년까지 무역 및 투자의 기본 환경을 구축하고, 무역, 투자, 자본, 사람, 물류, 데이터 등 이동의 자유와 편리성을 확보함.
 - 자유무역항 시스템을 완전히 정착하여 자유롭고 편리한 비즈니스 환경의 최적화 구축
- 2035년까지 하이난 자유무역항에서는 네거티브리스트 산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 대해 기업소득세를 15%로 인하함.
- 과세 연도에 하이난 자유무역항에서 183일 이상 거주민에 대해 개인소득세 3%, 10%, 15%의 3단계 초과누진세율 적용함.

- 2035년까지 자유무역항 운영관리를 위한 제도·시스템 도입의 정착·안정에 박차를 가하여, 비즈니스 인프라 환경 경쟁력 확보하고자 함.

4) 2050년까지 계획

- 2050년 하이난을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자유무역항으로 완성하고, 종합경쟁력 및 문화영향력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자리 잡도록 함.
 -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 되는 2021년 전면적인 샤오강(小康,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 사회 건설,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 부강 민주 문명 조화의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을 각각 목표로 내건 것과 상호 연계됨(조선일보 2018/4/15).
- 궁극적으로는 하이난 자유무역항은 홍콩, 싱가포르에 버금가는 국제무역과 금융의 허브항으로 완성됨.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2020년 6월 8일 린넨수(林念修) 부주임의 언론 브리핑)에서는 하이난은 웨강아오대만구와 연계 발전하도록 실효적 협력을 하는 위치로, 홍콩 자유무역항의 일부 기능과 위치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음.
 - 하이난 천혜의 관광 자원과 전략적 첨단기술 산업단지 조성으로 외국인 관광객 및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세계 자유무역항으로 발돋움하고자 함.
- 중국 상무부의 국제무역경제합작연구원에 따르면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는 홍콩, 싱가포르 자유무역항의 운영시스템과 개방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들 자유무역항에 대한 모니터링과 벤치마킹을 통해 경쟁력 제고에 노력함.
 - 중국에서 개방도가 가장 앞선다고 평가받는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조차 전체 평점이 3점대에 머무르고 있으므로 하이난이 경쟁력 있는 자유무역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전방위적 개선 노력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됨.

[그림 5]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 홍콩 자유무역항, 싱가포르 자유무역항 제도 및 개방도 비교



자료 : 자유무역항연구(2018), p.5

3. 의의 및 전망

1) 의의

- 중국 하이난성의 전통산업 구조조정 및 산업고도화 추진으로 지역경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플랫폼을 마련함.
 - 미국뿐만 아니라 G7, 나토, EU까지 중국을 압박하는 형국은 안정적 성장을 위해 내부 성장동력 확보 및 기술 확보가 더욱 절실했고 자유무역항을 통한 출구를 확보하는 계기가 마련됨.
- 미·중 갈등 속에 중국 정부는 신성장 동력 발굴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예측이 확인됨.
 - 외국인 투자유치는 내수경제 활성화, 기술 발전, 산업고도화 및 투자국을 우호 동맹국으로 편입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자유무역항 건설로 계획이 가시화됨.
 - 성장세가 둔화하는 중진국 함정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중국 제1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부터, 핵심 산업의 기술 확보로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해서 외부 불확실성에 대비한다는 전략이 본격화되었음.
- 2049년(신중국성립 100주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 목표에 보조를 맞춰 경제발전을 재도약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음.
 - 신중국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은 ‘현대화 국가 건설의 완성’으로 모든 인민이 공동으로 부유해져서 글로벌 초강대국에 진입하는 ‘대동사회(大同社会)⁴⁾’를 목표로 수립함.
 - 이는 궁극적으로 시진핑 주석이 주창하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⁵⁾’ 실현임.
 - 1921년 중국 공산당의 창당 이후 100년의 성과는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졌으나 실제로는 빈곤 구제, 빈곤 탈출을 하는 전면적 샤오캉 사회가 이제 실현된 것에 지나지 않음.

4)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일하고 합당한 분배로 모두가 편안한 삶을 영위한다’라는 중국 고대 사상의 이상사회

5) ‘중국몽(夢, 꿈)’에는 부강 중국, 민주적 중국, 문명 중국, 조화로운 중국, 아름다운 중국, 단결 중국, 행복 중국, 통일 중국, 평화 중국, 세계 공헌하는 중국 등 내용을 담고 있음.

2) 전망

- 2050년까지 장기적으로 추진되는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예단하기보다는 지속적 모니터링 속에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중국 정치 특성과 그동안의 행보를 보면 정부 목표는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의무 지표’이기 때문에 자유무역항으로 빠른 전환 가능성이 큼.
- 하이난 자유무역항의 개방 정도는 기존 중국(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 등과 비교해서 매우 확대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도 관심도가 높음.
- 하이난 자유무역항은 현재의 관광산업 우위를 바탕으로 의료·문화 등 관광과 연계된 서비스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됨.
 -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관광 소비를 촉진하는 쇼핑 천국 환경 조성으로 내수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함.
 - 중국 국내 관광객들이 하이난에서 10위안의 면세 제품을 구매해 내륙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하이난을 자유무역항과 관광 쇼핑센터로 부상시켜 거액의 해외 소비를 내수로 전환하고자 함(한국무역신문 2020/10/23).
-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 계획 발표 이후 중국 재정부, 해관총서, 국가세무국은 ‘하이난 리다오 관광객 면세 구매 정책에 대한 공고(关于海南离岛旅客免税购物政策的公告)’를 통해 중국 국내외 관광객의 쇼핑(소비력)을 하이난으로 유치하고자 함.
 - 하이난 관광객 연간 면세 구매 한도 3만 위안(한화 약 500만 원) → 10만 위안(한화 약 1,700만 원) 상향 조정, 단일 제품 면세 한도 8,000위안(한화 약 140만 원) 폐지, 아이폰 등 전자제품 면세 항목 대폭 추가 등 관광객의 소비 편의를 대폭 상향 조정함.
 - 하이난에서 면세로 판매되고 있는 아이폰11 프로맥스(iPhone 11 Pro Max) 512GB 기종은 1만 210위안(한화 약 173만 원)으로 애플 홈페이지의 공식 판매가인 1만 2,699위안(한화 약 215만 원)보다 20%나 저렴하게 판매되는 등 면세 품목을 확대함.
- 하이난이 자유무역항으로 탈바꿈하더라도 홍콩, 마카오처럼 카지노, 경마장 등 도박업종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천명하고 있음(서울신문 2021/7/27).

- 하이난 지역 전체를 중국을 대표하고 홍콩을 대체하는 무역 허브로 육성하고자 ‘네거티브리스트’ 발표 등 자유무역항 건설 후속 조치가 계속될 것임.⁶⁾
 - 해외 사업자에 대해 농업과 건설, 통신, 교육 등 11개 규제 분야 외 다른 분야들은 외국기업들도 하이난에서 중국업체들과 동등하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음.
- 하이난성 하이커우 국가첨단기술개발구⁷⁾를 중심으로 첨단산업 유치·확대하여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첨단기술 관련 외자 유치에 더욱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갈 것임.
 - 하이난에 투자 또는 창업하고자 하는 홍콩, 마카오 등 화교를 위한 사업 자문·안내 서비스 스테이션을 설치함.
 - 하이커우 장둥신구(江东新区), 양푸 경제개발지구(洋浦经济开发区), 보아오 리창 국제 의료관광 시범지구(博鳌乐城国际医疗旅游先行区), 썬야 야저우만 과학기술 단지(三亚崖州湾科技城), 하이난 생태 소프트웨어 단지(海南生态软件园) 등 하이난 핵심 5개 산업단지에 설치됨.
 -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 총체 방안’이 발표된 후 첨단기술개발구에서는 전기자동차, 제약 등 57개 건설 프로젝트가 진행됨(신화망 2021/6/28).

6) ‘네거티브 리스트’는 당국이 명시적으로 금지한 것을 뺀 나머지를 모두 허용하는 방식이고, ‘포지티브 리스트’는 허가한 것 외에 나머지를 모두 제한하는 방식으로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이 개방도가 더 높음.

7) 하이난(海南)성 하이커우(海口) 국가첨단기술개발구는 1991년 설립된 하이난성의 유일한 국가급(級) 첨단기술개발 구이며 설계 면적은 85.42km²에 7개의 산업단지로 구성됨.

참고자료

- KOTRA 글로벌 마켓 리포트(2018). 「중국 특구의 최신 버전, 자유무역시험구에 주목하라」.
- 중국 국제무역합작연구원(2018), 「자유무역항연구」.
- KMI 중국리포트(2017).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발전 현황 및 향후 개혁방향」.
- 国务院(2020), 「海南自由贸易港建设总体方案」.
- “제2의 개혁·개방 상하이 자유무역지대, 금융개방에 사활 건 쌍두마차.” 매일경제뉴스. 2013. 10. 7.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13/10/946271/>(검색일: 2021년 9월 28일)
- “세계 갑부들, 스위스 은행 비밀계좌 해지하고 미술품 사재기.” 조선일보. 2013. 7. 26.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7/26/2013072600139.html(검색일: 2021년 9월 20일)
- “중국 하이난, 면세 한도 500만→1700만원 상향… 아이폰도 판다.” 한국무역신문. 2020. 10. 23.
<https://www.weeklytrade.co.kr/news/view.html?section=1&category=136&item=&no=68856>
(검색일: 2021년 9월 28일)
- “첨단기술 한자리에, 하이커우 첨단기술개발구.” 신화망. 2021. 6. 28.
http://kr.xinhuanet.com/2021-06/28/c_1310032258.htm(검색일: 2021년 9월 29일)
- “농업·건설 등 11개 외 모두 개방… 中, 홍콩 자유고 하이난 띄운다.” 서울신문. 2021. 7. 27.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728011010>(검색일: 2021년 9월 29일)
- “中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프로젝트 추진.” KOTRA 광저우무역관. 2020. 6. 30.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3/globalBbsDataView.do?setIdx=242&ataldx=182865>(검색일: 2021년 9월 30일)
- “하이난 세계 최대 자유무역항 로드맵 나왔다...2050년까지 4단계 건설.” 조선일보 2018. 4. 15.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4/15/2018041500994.html(검색일: 2021년 9월 30일)
- “海南自贸港总体方案中的部分精选内容解读” 海岛洞见. 2021. 7. 21.
https://mbd.baidu.com/newspage/data/landingsuper?context=%7B%22nid%22%3A%22news_9483136791371847006%22%7D&n_type=-1&p_from=-1(검색일: 2021년 9월 20일)
- 证券之星(<http://news.stockstar.com>)
- 중국국가통계국(<http://www.stats.gov.cn/>)
-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 산업통상자원부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홈페이지(<https://www.motie.go.kr/ftz/masan/masanMain.jsp>)